

# 좋은 인연 (하)

이경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그림 · 문병성

나는 그와의 결혼을 고집했고,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택일이나 집을 얻는 방위, 한 들어오는 날자 등의 문제에서 사사건건 부딪쳐야 했고 나는 그런 형식들에 지쳐갔다. 그러면서 나는 애꿎게도 이제 불교신자라는 것에 싫증을 느꼈다.

사주팔자와 궁합, 택일이라는 간편한 보아도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그 간편에 그려져 있는 만민자가 꼭 사찰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내가 불자였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았고 그로 인해 힘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내 머릿속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싶었던 나는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결심하였다. 하지만 어느 곳을 가도 마음이 온전히 편치 않았고, 순간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나의 모태신앙인 불교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염마의 깊은 불심은 어떤 식으로든 분명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임신을 하였다. 결혼하고 바로 생긴 아이라 더욱 반가웠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유난히 근무지 변경 발령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받았다. 이렇게 연이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궁합문제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 궁합이 좋지 않아서 자주 이런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남편이 궁합이 나쁜 나와 결혼해서 안 풀리는 것은 아닐까? '그때 어느 점점에서 시험 준비를 일년 더 하라고 할 때 해볼 겸 남편 고집대로 그만뒀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그렇게 좋아 결혼했던 우리도 티격태격 하는 날들이 늘어갔

서로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점집을 배회하기 시작했고 뭔가 시원하게 해결할 대안을 그들이 찾아주길 기대했다.

우연한 기회에 다시 찾은 절은 여전히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로 북적였다. 한 동안 그렇게 절을 오가다가 기본교육부터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마침 친정언니가 기본교육을 받아 좋았다고 자꾸 권하던 차였다. 돌아보니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절에 자주오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라고는 어린이 법회에 몇 번 참석한 게 다였고, 초파일에 연등 켜기 위해 연례행사처럼 들렀던 것이 내 불자생활 이력의 전부였다.

공부를 통해 실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인연이 된 조계사 보도탑에서의 자원봉사는 나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공부야 부

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서부터 경계하셨듯이 점술에 의지하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했던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고, 가족의 우리를 부드럽게 설득하지 못하고 강하게 고집 부렸던 것이 두 번째 잘못이었다. 세 번째는 연기법에 의한 인과를 내 의지와 욕심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하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으며, 네 번째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한 것이 또한 나의 잘못이었다.

하나씩 나의 잘못을 짚어가면서 그동안 업마가 사주팔자에 의지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마저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달려있었고, 내 마음이 점술가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었

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되풀이 하여 더 많이 깨닫고 수정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혹은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간다. 어느 집에 가면 부처님 상을 모셔두고 미래를 점치고 있다. 그 집을 다녀간 사람 중에 어떤 이는 '부처님은 점술가에게 신통력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 신자 가운데는 스님께 결례인지도 모르고 사전을 들이대며, "우리 아들이 언제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라며 묻기도 한다. 또, 어느 스님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그 스님과 절은 승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일부 불자의 태도는 타종교의 집중 공격대상이 된다.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닦고 깨달음을 얻는 불교사상이 기복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 철학관 전전하며 점 봤던 내 과거 부끄러워

## 마음공부·자원봉사 통해 마음 치유하다보니

## 남편과 지식, 친정과의 관계도 원만해져

죽은 상태에서 올린 글들이 홈페이지에 하나 둘 쌓여가면서 느껴지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아무것도 몰라 백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그동안 불교신자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공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내 마음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남편과 지식 그리고 친정과의 자연히 관계가 원만해지기 시작했다. 비록 현실과 외부에 보여지는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내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다. 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다보니, 결혼과정에서 양금이 남아있던 남편과 친정의 마음도 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남편과 지식 잘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스스로 치료하고 보듬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서 나의 어느덧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우선 내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일들이 생사를 가를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

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만하고 오만하여 내 스스로를 높이던 상(像)을 깨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을 깨는 작업은 만만치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상이 깨졌나 싶어 돌아서면 다시 나타나는 또 다른 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제야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남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대

한때 수많은 철학관을 전전하며 사주와 궁합을 봤고 지금도 누가 점집에 간다면 '한번 따라가 볼까?' 하며 흔들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치지 않지만, '불자는 사주궁합을 본다'는 통념이 깨지고, '불자는 인과(因果)를 믿는다'는 말이 일반화되었으면 한다.

답답한 마음에 혹은 호기심에 미래를 점쳐 가는 이들에게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왔다 가는 것이고 한번의 점술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는 충고를 감히 해 본다. 점술은 아주 잠깐일 지라도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때 현실 직시의 눈을 잃어버리고 내리는 결정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만큼 내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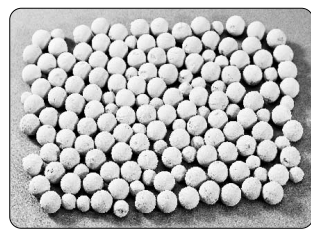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 죽여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여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혈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씩씩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여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고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힘을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항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마음에 쉽표 하나 필요할 때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있다.

매일 아침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듯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스님의 따스한 미소가 번지는 행복한 시간

오전 9시 5분 성전스님의 <행복한 미소>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